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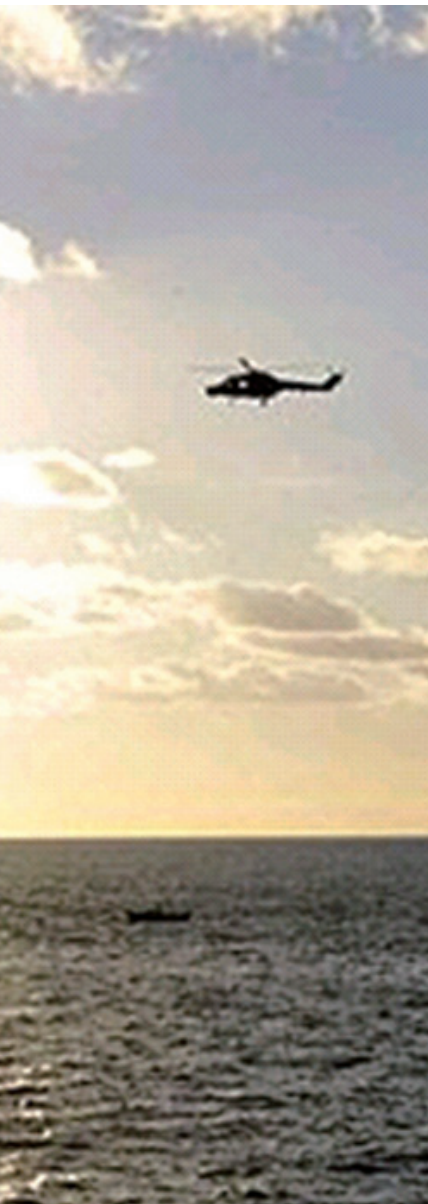
아덴만 영웅들의 인질 구출 작전

한국은 청해부대의 최영함에 인질 구출을 지시했다. 순식간에 온 국민의 관심이 인도양으로 쏠렸다. 실패에 대한 걱정과 성공을 바라는 염원이 이어졌다.





글. 이정훈
신동아 편집위원



호랑이(寅) 해는 확실히 드센 것 같다. 경인년(庚寅年)인 1950년 우리는 6·25전쟁을 겪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경인년인 2010년, 천안함 피침 사건(3월 26일)과 연평도 포격전(11월 23일)을 겪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DMZ)에서는 경찰 병력이 기관총 이하의 소화기만 갖고 순찰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민정경찰(民政警察)’을 투입한다. 사단의 최정에 부대인 수색대 중 일부에 민정경찰 자격을 부여해 GP(Guard Post; 전방초소)에 투입하는 것이다. 민정경찰은 포는 소지하지 않는다.

북한군도 마찬가지다. 북한 사단은 최정에 부대를, 민정경찰 부대를 줄인 ‘민경대(民警隊)’로 명명해 놓았다. 민경대 역시 기관총 이하의 무기만 소지하고 GP에 들어간다. 그래서 DMZ 총격전은 기관총 사격만 오가는 것이다. K-2나 AK-47 같은 소총도 쓸 수 있지만, 정확도와 사거리가 기관총만 못하기에 DMZ 교전은 대개 기관총으로만 이루어진다.

DMZ의 남북 경계인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바깥에 있는 부대는 정규 무장을 할 수 있다. 야포와 전차, 장갑차, 헬기 등 모든 무기를 갖출 수 있다. 그러나 그 무기를 DMZ 안쪽으로 쓸 수는 없다. DMZ를 넘겨 상대 지역에 포탄이나 미사일을 떨어뜨려도 안 된다. 정전협정이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3차 핵실험 후 북한이 거듭해서 정전체제를 깨겠다고 하는 것은 DMZ 안에 있는 우리 GP, 남방한계선 남쪽에 있는 우리 GOP(General Out Post; 일반전방초소) 부대를 향해 포탄과 미사일을 떨어뜨릴다는 위협이다. 정전상태 이전의 전쟁을 하거나 전쟁을 해도 되는 상태로 되돌아가겠다는 위협인 것이다.

한반도의 충돌은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서도 금지되고 있다. 남북한은 이 합의서를 채택한 이듬해(1992년) 세 개의 부속합의서에 서명하는데, 그 중 하나가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약칭 불가침합의서)’이다. 불가침(不可侵)은 상대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1965년 한국과 일본은 ‘기본조약’을 발표시켜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국가와 국가가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려면 상대를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침략하지 않는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조약에는 반드시 상대를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침략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간다. 기본조약은 평화로운 관계로 들어간다는 약속인지라, ‘평화조약’ 또는 ‘강화(講和)조약’으로 부르기도 한다.



남북한은 상대를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끼리 맺는 조약을 맺지 못한다. 그래서 조약이 아닌 ‘합의’를 한다. 남북한은 1992년 불가침합의서를 맺었으니 침략하면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일으켰고, 3차 핵실험 후에는 이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정말 한심한 것은 이 땅의 중북세력이다. 상대를 독립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남북한은, 맺을 수 있는 최대한의 평화 합의인 불가침합의서에 서명했는데, 저들은 남북한이 평화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선동한다. 불가침합의서를 깨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북한인데 대한민국을 향해 남북평화조약을 맺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정전협정과 불가침합의를 거론한 것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거론하기 위해서이다. 두 사건을 거론하는 것은 아덴만 여명작전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NLL을 넘어와서 발사한 CHT-02D 어뢰로 대한민국 초계함인 천안함을 격침시킨 사건이다.

연어급 잠수정이 어뢰를 쏘아 천안함을 격침시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로 확인됐다. 첫째가 현장에서 수거한 CHT-02D 어뢰의 잔해이다. 둘째가 사건 전후 미국 첩보위성과 우리의 금강 정찰기 등이 찍어온 사진이다. 우리 군은 사건 전날 연어급 잠수정이 사라진 것을 알았다. 그런데 해석을 잘못했다. 연어급 잠수정은 문어급, P-4급 등과 함께 작은 잠수정이다. 때문에 이 잠수정들을 공작

원 침투로만 사용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 그때 서해의 북한 군항에서는 연어급 잠수정이 처음 등장했는데, 우리 군은 이 잠수정이 건조가 될 때 시험운전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

따라서 이 잠수정이 사라져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작전하는 해군 함정에 대잠(對潛)작전을 하라는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천안함 사건을 당한 후 우리는 미 첩보위성이 찍어놓은 사진을 받아와 다시 살펴보다가, 이 연어급 잠수정이 두 개의 어뢰관 가운데 한 개를 비운 상태로 기지로 돌아온 것을 보고 경악했다. 북한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연어급 잠수정에 실은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것을 뒤늦게 안 것이다.

어뢰는 미사일 정도에 해당하는 전략무기로 인식된다. 그러나 사용 빈도는 훨씬 더 적다. 미사일은 이라크전(2003년)이나 아프간전(2001년)에서 널리 사용됐지만, 어뢰는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맞붙은 포클랜드 전쟁(1984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어뢰를 탑재한 잠수함정도 손꼽히는 공격무기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은 ‘기관총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다. 상대 진영으로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정전협정 체제를 완전히 무시한 도발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응징정보복을 해도 ‘한국이 정전 체제를 깨고 북한을 침략했다’는 비난을 국제사회로부터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응징정보복을 하지 못했다. 연평도 포격전은 천안함 사건보다 더한 도발이었다. 이 사건은 인민군 4군단 포병여단이 방사포와 기타 포를 동원해 연평도에 TOT 사격을 한 경우였다.

TOT(Time on Target)는 표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포는 먼저 발사하고 가까이 있는 포는 나중에 발사해, 표적에는 동시에 포탄이 떨어지게 하는, 포병 사격의 꽃으로 불리는 일제사격(一齊射擊)술이다. 이러한 사격을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후 한국을 향해 처음 떠났었다. 정전 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전쟁 난민이 발생했다.

북한이 정전협정과 불가침합의를 거듭해서 어기고 있는데, 종북세력들은 남북 평화조약을 맺어야 한다는 이상한 소리만 질러댄다. 북한이 3차 핵 실험을 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은 종북주의자들의 자유발언을 보장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이 길었다. 긴 사설을 늘어놓은 것엔 이유가 있다. 아덴만 여명작전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당한 2010년 대한민국은 부글부글 끓었다.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는 보수파의 주장과 ‘평화조약을 맺어야 한다’는 종북세력의 목소리가 뒤엉켜 내홍에 내홍을 거듭했다. 그러나 보수세력과 종북세력 사이에는 큰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보수세력도 종북세력 만큼이나 한반도가 전쟁으로 들어가는 것은 회피한다는 사실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주석궁과 국방위원회-인민무력부 청사, 4군단 본부 등을 강력히 폭격하고 싶었지만 북한이 공군기와 노동과 스커드 미사일, 방사포 등으로 총반격을 해온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공포를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싸우자”, “싸우지 말자”는 우리끼리의 내홍만 거듭했다.

삼호주얼리호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

그러한 때 신경을 긁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2011년 1월 15일 대한민국 상선 ‘삼호주얼리호’가 아덴만 입구의 인도양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것이다. 승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뛰다고, 소말리아 해적까지도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으로 여겨졌다. 자존심이 상한 대한민국은 폭발 일보 직전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납치 사건도 쉽게 다룰 수가 없다. 잘못하면 인질이 희생된다는 부담이 있

기 때문이다.

1979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일어난 이슬람 복고혁명으로 성난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을 점령했으며 대사관 직원들과 미국인 52명을 1981년 1월까지 444일 동안 인질로 삼는 사건이 있었다. 1980년 4월 24일, 미군은 이들을 구출하고자 ‘독수리 발톱’ 작전을 펼쳤다. 그런데 동원한 수송기와 헬기가 충돌해 특공대원들 8명이 전사하는 바람에 작전은 대실패로 돌아갔다. 미국의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졌다. 지난 2월 제8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세 개의 오스카 상을 수상한 미국 영화 ‘아르고(Argo)’가 바로 이 사건을 소재로 한 것이었다.

미국은 소말리아에서도 나쁜 추억을 이어갔다. 소말리아는 오랫동안 내전을 겪어 왔기에 1992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군대가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들어갔다. 소말리아의 민병대는 평화유지군을 적대시하고 공격했다. 1993년 소총으로 무장한 소말리아의 민병대가 미군의 UH-60 블랙호크 헬기 두 대를 격추시키고, 전사한 미군의 시체를 온 시내에 끌고 다녔다. 그 장면을 본 미국인들은 경악했다.



그 후 미군은 소말리아에서 철수했다. 2002년에 나온 미국 영화 ‘블랙호크다운(Black Hawk Down)’은 이 사건을 소재로 제작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너무도 유명해서 특수부대원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특수부대원들이라면 누구도 같은 경우를 겪고 싶지 않다는 강박증까지 갖게 되었다. 그런 소말리아의 해적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당한 대한민국의 상선을 납치한 것이다.

당시 한국은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한 척의 일반 구축함(DDH)으로 구성된 청해부대를 파견해 놓고 있었다. 최영함으로 명명된 이 구축함에는 해적 소탕전을 펼칠 수 있도록 UDT/SEAL로 약칭되는 해군 특수전 여단의 한 개 검문검색대와 링스헬기 한 대가 탑재되어 있었다. 한국은 청해부대의 최영함에 인질 구출을 지시했다. 순식간에 온 국민의 관심이 인도양으로 쏠렸다. 실패에 대한 걱정과 성공을 바라는 염원이 이어졌다.

전속력으로 피랍 해역으로 가면서 최영함은 삼호주얼리호에는 석해군 선장(이하 ‘석 선장’)을 비롯한 한국인 선원 8명과 미얀마 선원 11명, 인도네시아 선원 2명 등 21명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작전을 하려면 선박의 구조를 알아야 했다. 최영함은 삼호주얼리호 본사로부터 그 배의 설계도를 받아 어디에 인질이 잡혀 있고, 어디에 납치범들이 있을지를 추정했다. 특수전요원들은 어디로 침투할 것인지에 대한 작전도 짰다.

1차 구출작전 실패

1월 18일 저녁 8시쯤 전속력으로 달려온 최영함은 삼호주얼리호를 발견했다. 그때 해적들은 또 다른 납치를 시도하고 있었다. 삼호주얼리호에서 내린 자선(子船)을 이용해 몽골 선박을 또 납치하려고 한 것이다. 최영함의 함장인 조영주 대령(이하 ‘조 함장’)은 대담한 작전을 펼쳤다. 링스헬기를 띄워 자선에 탄 해적들을 공격하는 사이, 고속단정

으로 삼호주얼리호에 특수전 요원들을 침투시키려 한 것이다.

그러나 너무 단순한 작전이었기에 삼호주얼리호에 있던 해적들이 고속단정을 발견하고 사격을 가해왔다. 고속단정은 고무보트보다 약간 큰 배이기에 방호(防護)력이 없다. 조 함장은 고속단정을 철수시켰다. 그 사이 링스헬기의 사격에 놀라 해적들이 바다로 뛰어들었기에 자선은 빈 배가 되었다. 고속단정을 불러들인 최영함은 자선을 노획했다. 이 작전은 실패로 이해됐다. 해적들의 사격으로 고속단정을 탔던 특수전 요원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하자 국민들의 마음은 어두워졌다.

그때 삼호주얼리호의 석 선장도 이심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피랍 직후 그는 구출 부대가 쫓아올 수 있도록 소말리아로 빨리 가자는 해적들을 속이며 배를 지그재그로 몰았다. 그리고 엔진 오일에 물을 타서 연료가 완전히 연소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장을 내 배의 속도도 줄였다. 해적들이 뒤늦게 눈치를 채고 석 선장을 구타해 다리 골절상을 입혔다.

한국은 당하기만 하는 나라인가. ‘이순신 장군이 통곡을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삼호주얼리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악화된 국민 여론 때문에 서울에서는 계속 작전을 성공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조 함장은 속이 타들어갔을 것이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아덴만 여명작전을 개시한 것이다.

아덴만 여명작전 개시

1월 21일 새벽 그는 서울과 연결된 통신망을 차단했다. 무선을 차단하는 순간 함합 등 서울의 본부에서는 난리가 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작전을 위해 과감히 결정했다. 그리고 검문검색대장을 통해 저격수인 박모 중사를 최영함에서 가장 높은 마스트(선체의 갑판 위에 세워진 기둥)로 올라

가 몸을 숨게 했다. 동이 뜨지 않은 시각 박 중사는 저격수용 망원경과 조준경이 달린 저격수용 총을 들고 마스트로 올라가 몸을 숨겼다. 항공모함 같은 큰 배도 바다에서는 흔들린다. 마스트는 최영함에 서 가장 높은 곳이니 더 많이 흔들린다. 박 중사는 흔들리는 배의 리듬을 잡아 ‘원 샷 원 킬(one shot, one kill)’을 해야 한다.

최영함은 전투함이라 함포와 미사일로 무장해 있다. 그러나 인질 구출작전에 이러한 무기는 무용지물이다. 최영함 갑판에는 M-60 기관총을 쏠 수 있는 거치대가 있다. 조 함장은 신모 중사에게 그 거치대에 M-60 기관총을 걸어 놓고 사격을 준비하도록 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공격조인 검문검색대 요원을 태운 고속단정을 내려 삼호주얼리호 후미로 다가가게 했다.

조 함장은 후대가 간편해 게릴라들이 많이 사용하는 RPG-7 로켓포를 해적들이 갖고 있을 것으로 보았다. 고속단정이 RPG-7을 제대로 맞으면 박 살나므로 해적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야 했다. 고속단정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다음 그는 링스헬기를 이함시켰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모든 배에는 그 누구와도 통신할 수 있는 ‘국제 상선통신망’이 있다. 그는 이 통신망을 통해 한국 말로 “삼호주얼리호 선원 여러분, 잠시 후 우리 해군이 여러분의 구조를 위해 공격할 것입니다. 가능한 한 안전 구역으로 대피하고, 외부로 나오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반복했다. 해적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선원은 물론이고 한국 선원과 함께 살아온 인도네시아 등 3국 선원들은 알아챌 것으로 기대했다.

모든 것은 운에 맡겨야 한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결심이다. 충분한 방송을 했다고 생각한 그는 링스헬기에 공격을 지시했다. 링스헬기는 해적이 그들 본부와 교신하지 못하도록 삼호주얼리호의 통신 안테나부터 부셨다. 통신을 못하게 하면서

작전을 펴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갑판에 있던 해적 한 명을 쓰러뜨렸다.

그때 즈음 최영함 갑판에 있던 신 중사가 M-60으로 배를 조종하는 시설이 집중돼 있는 선교(船橋)를 향해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집중사격을 받은 선교에서 일부 해적들이 탈출하자 마스트에 있던 저격병(스나이퍼, sniper) 박 중사가 정확한 단발 사격으로 쓰러뜨렸다. 서서히 동이 터오고 있었다. 계속된 사격으로 삼호주얼리호에서는 움직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김모 대위가 이끄는 공격조가 삼호주얼리호 후미에 고속단정을 붙이고 갑판으로 올라왔다. 배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던 그들은 순식간에 선교

교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삼호주얼리호(합동참모본부 제공)



쪽으로 달려가 각자가 맡은 선실을 향해 흠어져 섬광탄을 던져 넣었다. 섬광탄이 터지면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눈과 귀가 멀게 된다. 공격조는 순식간에 배를 장악했다. 그때 석 선장은 내부 상황을 공격조에 알려주다 해적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쓰러졌다.

완벽한 작전성공(Perfect operation)

해적으로부터 총격을 받은 석 선장의 부상은 심각했다. 해적은 8명이 사살되고, 5명은 생포되었다. 석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과 공격대원들은 대부분 무사했고, 일부 경미한 부상자들이 있었을 뿐이었다. 완벽한 작전성공(Perfect operation)이었다. 조 함장은 납치된 선박에서 인질과 공격대원 중 한 사람도 숨진 이가 없이 구출하는 신기록을 세운 것이다.

보고를 받은 조 함장은 비로소 서울과 연결된 무선망을 개방해, 완전 성공을 보고했다. 그러자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 “야! 왜 무전을 켜어”라는 비난이 동시에 날아들었다. 그러나 어쩔 것인가. 작전에 집중하려면 무선을 꺼야 했고 그 결과 성공을 거뒀는데.

조 함장이 무선을 차단하고 작전에 집중한 것은 연평도 포격전을 보면 아주 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천안함 사건 후 우리는 제대로 사건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난리를 쳤다. 이 난리는 ‘보고만 제대로 하면 상급부대에서 제대로 지휘하고 지원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다. 그런데 연평도 사건 때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났다. 연평도 사건은 함참을 비롯한 우리 군 수뇌부가 충분히 주목한 가운데 일어났다. 때문에 100% 보고가 이뤄졌지만, 함참의장을 비롯한 한국군 수뇌부는 어떠한 지지도,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았다.

공격을 받은 연평부대장이 악을 써가며 “몇 발을 쏘까요?”라고 물어도, “대응은 현장 지휘관에 일임돼 있다”는 이유로 침묵만 돌아왔다. 그렇다면 작

전만 방해하는 보고를 왜 해야 하는가?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부대라면 보고를 차단하고 작전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조 함장이 그렇게 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는 승리를 갈망하는 국민 소망을 만족시켜 줬으니, 누구도 그의 행동을 비난할 수 없었다.

최영함의 작전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해적의 총격을 받은 석 선장이 위독했기에 빨리 병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했다. 중동 국가의 의료 시설은 대부분 열악한 수준이다. 그런데 오만에 과거 총상을 입은 미군을 치료한 병원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 최영함은 전속력으로 오만으로 달려갔다. 같은 소식이 한국에 알려지자 아주대학병원 외상센터의 이국종 박사가 팀을 이끌고 오만으로 날아갔다. 오만의 술탄카부스병원으로 옮겨진 석 선장은 1차로 일부 총알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26일 이국종 박사도 참여한 가운데 총알 제거 수술을 또 한 번 받았다.

세계는 한국이 생포해온 해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주목했다. 해적 처벌은 국제법적으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모든 나라의 군함은 그 나라의 영토로 인정된다. 때문에 세계 어디에 가 있는 군함에서는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된다. 다른 나라에 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의 법이 적용된다면, 더 이상 군함이 아니다. 그러나 민간 선박은 다른 나라에 가 있으면 속지(屬地)주의에 따라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 한국은 최영함이 생포한 해적을 한국으로 데려가 처벌하겠다고 사법권 행사를 천명했다.

최영함은 주인이 없는 공해(公海)에서 해적들을 제압했다. 그때 발생한 해적 사망자 처리가 마땅치 않으면 수장(水葬)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말리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소말리아에 인도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의 움직이는 영토가 생포한 해적은 대한민국의 공군기로 압송해 와야 한다. 그러나 한국



2010년 12월 8일
부산작전기지를
출항할 당시의 최영
함(해군 제공)

공군이 보유한 최대 수송기인 C-130은 중간 급유 없이 오만에서 한국까지 한 번에 날아올 수 없다. 급유기가 없으니 몇 나라에 내려 연료를 보급 받아야 하는데,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 군용기의 이착륙을 까다롭게 통제한다.

그래서 민항기로 데려오는 것을 검토했는데, 그렇게 되면 속지주의에 따라 그 나라와 또 협의를 해야 한다. 한국이 방법을 찾지 못하자 오만에 인접한 아랍에미리트(UAE) 왕실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왕실 전용기를 내주었다. 당시 UAE는 한국 원전을 도입하기로 했기에 한국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 그런 결정을 내려준 것이다. 3월 30일 이 비행기를 타고 해적들이 도착하자 언론은 큰 관심을 보였다. 군은 해적들을 해경에 인도했고, 해경은 1차 조사를 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재판을 열어 무기징역에서 12년까지의 형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은 완벽히 사법권을 행사한 것이다.

해적들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날인 29일 의식을 되찾지 못한 석 선장도 이국종 박사와 함께 귀국했다. 아주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석 선장은 2월 3일 의식을 잠시 회복했지만 부상 정도가 심해 280일간 치료를 받고 11월 4일 퇴원했다.

군의 최대 가치는 승리에 있다

아덴만 여명작전은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크게 자존심이 상했던 한국인들을 만족시켜준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우리 군은 사기를 회복해 북한에 대해 다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 사건은 군의 최대 가치는 승리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당하기만 하면 양론이 대립해 혼란이 이어지지만, 승리를 하면 애국심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한국은 계속된 남남갈등으로 혼란이 계속 됐을 것이다. 이 사건은 군의 궁극적인 가치는 승리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경우다.

이 사건은 군함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우리 군이 개입된 사건은 우리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해적 같은 국제범죄를 한국이 책임지고 제압해 처벌까지 했다는 귀중한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아덴만 여명작전은 신화를 남기고 역사로 넘어갔다. 지난 해 말 조 함장은 준장에 진급하고 석 선장은 지난 2월 말의 18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승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 3차 북핵실험으로 인한 위기도 승리를 하겠다는 강한 집념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것을 아덴만 여명작전은 보여준다.